

수여동사의 의미구조에 대하여

— 최소이론적 접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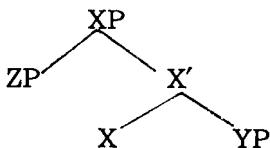
구자혁

I. 서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사를 비롯한 서술어와 그것이 필요로 하는 논항이다. 논항의 수, 종류 그리고 그것의 계층적 관계를 규정한 구조를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 또는 의미구조(thematic structure)라 한다.¹⁾

본고의 목적은 Chomsky(1992)에 의해 제안된 최소이론(minimalist theory)에 입각하여 영어 수여동사의 새로운 의미구조를 발전시키는데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행위자(agent)나 주제(theme)와 같은 의미역이 본원적 개념이 아니라 아래 (1)과 같은 최소 핵 계층구조(minimal X-bar structure)에 의해서 파생된 개념이라고 가정한다면, 수여동사의 의미구조가 어휘구조 속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사구조 자체가 의미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1) 최소 핵 계층구조



(1)에서 핵-보충어의 관계는 국부적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전에서 핵이 가지고 있는 어휘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의미역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정어 위치에 있는 요소는 핵과 보충어의 결합에 의해 복합적으로 의미역이 주어진다고 가정되어 왔지만(Chomsky 1981 참조), 우리는 최소 핵 계층구조 위에서 아래 (2)와 같은 주술관계원리(principle of predication)에 의하여 의미역 관계가 주어진다고 주장한다.

1) 앞으로 우리는 논항구조 대신에 의미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이는 논항이 본원적 개념이 아니라 파생된 개념이라는 우리의 주장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 논항의 수를 기준의 이론에서처럼 한정된 몇개로 고정하는 것은 술어의 종류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여러 의미관계를 포착하지 못한다. 따라서, 의미구조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의미관계(thematic relation)일 뿐이지 고정된 논항의 수나 그것들의 계층적 구조(thematic hierarchy)는 아니다.

(2) 의미역관계 완전해석원리

- a. 지정어 위치에 있는 모든 논항은 X'-술어 또는 XP-술어의 주어가 되어야 한다.
(Every argument in a specifier position must be the subject of an X'-predicate or an XP-predicate)
- b. 모든 술어(X' 또는 XP)는 논항과 주술관계에 있어야 한다. XP-술어는 AP, PP, DP이고 X'-술어는 약법주가 아닌 V'와 N'이다.(Every predicate (X' or XP) must be predicated of an argument, where XP-predicates are AP, PP, and DP, and X'-predicates are V' and N' except when they are light categories)

제2장에서는 이중목적구문이 일종의 수동화 규칙에 의한 변형된 구조라고 하는 Larson (1988)의 이론을 살펴보고, 그의 문제점을 제시하겠다. 제3장에서는 파생적 접근 대신에 최소이론의 가설과 Pesetsky(1992)의 영 통사론(Zero Syntax)의 idea를 받아들이어 여격구문과 이중목적구문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해보는 시도를 해보겠다. 제4장에서는 우리 이론을 여러 data에 적용하여 보고, 많은 문법현상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 보겠다. 아울러 Chomsky가 주장하는 새로운 격이론을 더욱 정제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격점검자와 격점검을 받는자가 같은 영역(domain)에 있더라도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으면 안된다고 본다. 우리는 이를 형식화하기 위해 activator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이것과 기능범주 AGR 사이에 자매관계(sisterhood)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Larson(1988)의 파생적 접근

아래 (3)과 같은 여격구문과 이중목적어 구문에 대한 연구는 생성문법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 (3) a. John gave Mary a book.
b. John gave a book to 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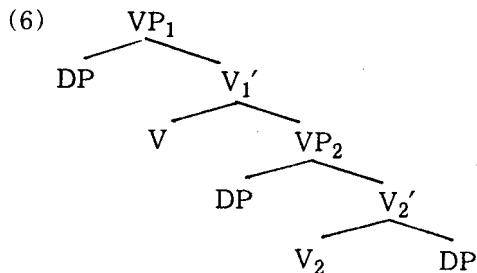
1960년대에는 주로 *to*-생략 규칙이나 삽입규칙과 같은 변형규칙에 의해 (3a)에서 (3b) 또는 (3b)에서 (3a)로 파생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1970년대초 어휘론적 접근방법에 따라 (3a)와 (3b)의 동사 give가 별개의 다른 동사로 간주되어, 각각 (4a, b)와 같은 구조를 갖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4a, b)와 같은 구조는 Chomsky(1981, 1986a, b)가 제시한 "principles and parameters" 이론하에서 Case 및 θ-이론에 문제점을 야기시킨다.²⁾ 따라서, Chomsky는 다음 (5a, b)와 같은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Larson(1988)은 Barss and Lasnik(1986)에서 제시한 여격 및 이중목적 구문의 비대칭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유일보어가설(Single Complement Hypothesis)을 받아들인 결과 동사구는 다음 (6)에서와 같이 외곽구조(shell structure)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그의 이론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예컨대, *give*와 같은 수여동사는 (7a)와 같이 3개의 논항을 가지는데, 주제계층(Thematic Hierarchy)의 조건 (7b)과 주제연결원리(Thematic Linking Principle) (7c)에 따라 (8)과 같은 여격구문의 의미구조가 파생된다.

- (7) a. *give* < AGENT, THEME, GOAL >

- b. 주제계층(Thematic Hierarc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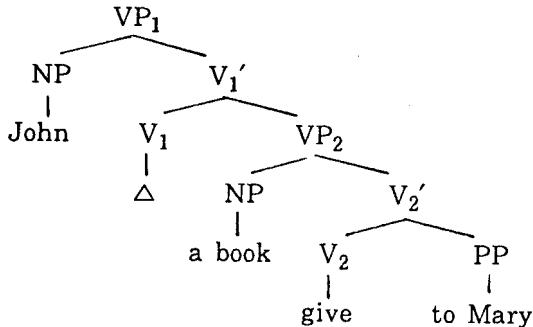
AGENT > THEME > GOAL > OBLIQUES(manner, location, time...)

- c. 주제연결원리(Thematic Linking Principle):

동사 α 가 의미역 $\theta_1, \theta_2, \dots, \theta_n$ 을 가지고 있을 때 주제계층에서 가장 낮은 의미역이 구성소구조의 가장 낮은 논항에 할당되고, 계속해서 다음으로 낮은 의미역이 그 다음으로 낮은 논항에 할당된다.

2) (4a)에서 NP_1 은 인접조건을 어기어 격을 받지 못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Chomsky는 내재적 격(inherent Case)이 주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내재적 격은 반드시 의미역과 관련지어 주어진다고 가정했으므로(Chomsky 1981: 171 참조), 똑같은 의미역이 주어진다고 보여지는 (4a)와 (4b)의 NP_1 에게 내재적 격이 주어지면 (4b)의 NP_1 은 (4a)와는 달리 2개의 격, 즉 구조적 격(structural Case)과 내재적 격이 주어지게 되어 격상충을 일으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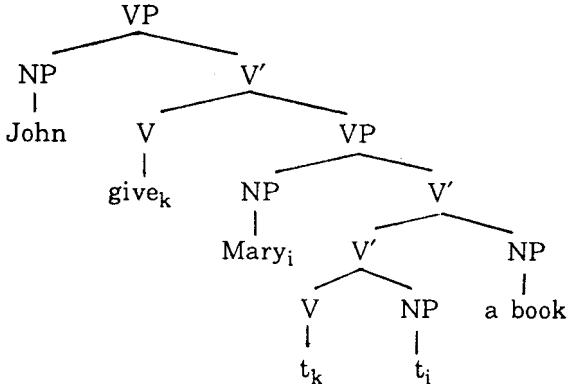
(8)



가장 낮은 의미역 *goal*을 갖는 명사구 *Mary*가 가장 낮은 위치인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그 다음에 낮은 의미역 *theme*을 갖는 명사구 *a book*이 V_2' 의 지정어 자리에 위치하게된다. 그러나 가장 높은 의미역 *agent*를 가진 명사구 *John*은 VP_2 내에 위치할 자리가 없으므로, Larson은 핵이 비어있는 또다른 동사구 하나를 VP_2 위에 설정하여 *John*을 VP_1 의 지정어 자리에 위치시킨다.

Larson에 있어서 (3a)와 같은 이중목적구문은 (8)과 같은 구조에서 *theme* 논항이 하강되어 V_2' 에 부가되고, 비어있는 그 자리로 *goal* 논항이 인상되어 다음의 (9)와 같은 구조를 만든다. 이것은 *give*라는 수여동사가 일종의 수동화 변형을 일으키어 여격구문에서 *to*로 실현되는 격이 이중목적 구문에서는 상실되기 때문에 격을 받기 위해 VP_2 의 지정어 자리로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9)



이와 같은 Larson의 이론은 다음 (10)-(12)과 같은 영역 비대칭성(domain asymmetry)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월성을 지닌다.

(10) a. I showed Mary herself(in the mirror).

b. *I showed herself Mary(in the mirror).

c. I showed Mary to herself.

d. *I showed herself to Mary.

(11) a. I showed each man the other's socks.

b. *I showed the other's friend each man.

- c. I sent each boy to the other's parents.
 - d. *I sent the other's paycheck to each boy.
- (12) a. I showed no one anything.
- b. *I showed anyone nothing.
 - c. I sent no presents to any of the children.
 - d. *I sent any of the packages to none of the children.

(10)에서 (12)까지 비문인 문장들은 성분통어(c-command) 조건을 어긴다. 예를 들어, (10b)에서 재귀대명사 *herself*는 자신의 선행사 *Mary*에게서 성분통어되지 않아 결속원리를 어긴다.³⁾

그러나 Larson의 이론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수동변형에 의한 이중목적구문의 분석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수동화는 기능적 범주인 굴절요소가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기 때문이다(Baker, Johnson, and Roberts 1989 참조). 둘째로, 동사 인상 (V-Raising)의 동기가 최소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약하다. 셋째로, 하나의 명사구에 내재적 격과 구조적 격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는 가정이 수용하기 어렵다. 더우기 다음 (13)과 같은 이중목적구문의 수동태에서 Larson 이론의 모순점이 있다.

- (13) a. Mary was sent a letter.
- b. ?*A letter was sent Mary.

만일, 보통 타동사구문에서 수동화가 이루어질 때 내재적 격과 구조적 격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중목적구문의 수동형은 모두 비문이어야 하지만 (13a,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

3. 영 통사론에 입각한 최소이론적 접근

Pesetsky(1992)는 의미선택(s-selection)과 연결(linking)과 같은 어휘부의 많은 문제점들이 음운론적으로 영인 파생접사를 가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우기 이렇게 가정된 영접사들이 명사화와 같은 형태론적 과정에서 소위 Myer의 일반화라 불리우는 일종의 blocking 효과로 탐지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⁴⁾ 그가 가정한 영접사들은 다음의 (14)-(17)에서 나타난다.

3) 결속원리에는 다음의 3가지 종류가 있다.

(A) 조응사 (재귀대명사, 상호대명사, 명사구 혼적)는 최소절 안에서 자신의 선행사에게 결속되어야 한다.

(B) 대명사는 최소절 안에서 결속되어서는 안된다.

(C) 지시적 표현(명사구, 변항)은 결속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서 결속된다는 것은 동일지시를 가진 표현에 의해 성분통어되어야 함을 말한다.

4) Myer의 일반화

Zero-derived words do not permit the affixation of further derivational morpheme.

(14) *Causative Constructions*:

- a. Bill was depressed by the bad news.
- b. The bad news [_V CAUS [_V depressed]) Bill.

(15) *Suggestive Constructions*:

- a. She was nervous.
- b. Her manner was [_A [_A nervous] SUG].

(16) *Double Object Constructions*:

- a. John gave books to Bill.
- b. John [_V ϕ_i [_V gave]) [_{PP} Bill [_P t_i] books].

(17) *Embedded Infinitival Cla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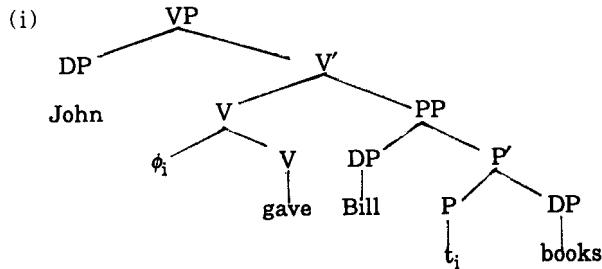
- a. They considered that Bill was happy.
- b. They [_V COMP_i [_V considered]) [_{CP} t_i [_{IP} Bill to be happy]]].

(16b)에서 볼 수 있듯이 Pesetsky는 이중목적구문에 영 접사를 설정하고 있다. 물론 그가 가정하는 구조와 우리의 구조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⁵⁾ 영 접사를 가정함으로써 많은 문법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그의 견해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는 다음의 (18a)와 같은 이중목적구문은, (19)의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첫번째 목적어(the church)와 두번째 목적어(some money) 사이에 추상적인 전치사 *WITH*를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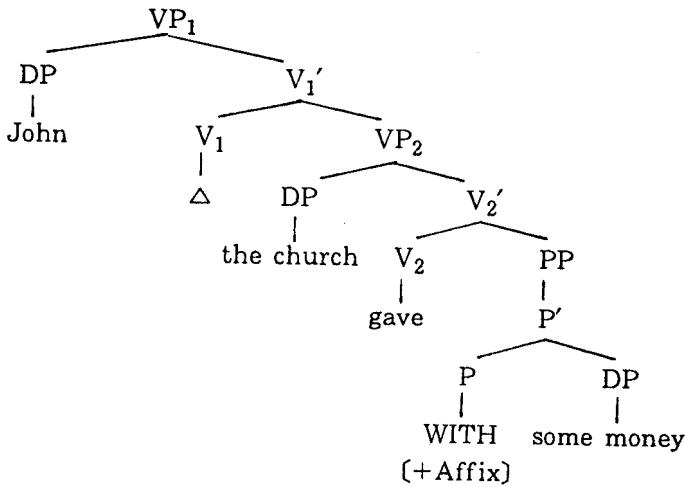
- (18) a. John gave the church some money.
 b. John gave some money to the church.

5) Pesetsky(1992)가 가정하는 이중목적구문의 구조는 다음 (i)과 같은 구조를 이룬다.



위 구조 (i)이 우리가 가정하는 VP-shell 구조와 다른점은 첫째, 전치사의 "internal selection"에 입각한 Cascade theory를 받아들이는 것과 둘째, Causer인 *John*이 (i)에 있는 PP에 내포된 것으로 가정된 또 하나의 PP 내의 목적어 위치로부터 이동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떤 이론이 더 우월한가를 결정하기는 쉬운일이 아니지만, 영 전치사 *WITH*를 설정하여 VP-shell 구조에서 의미 관계를 파악하려는 우리의 이론은 Pinker(1989) 등에 의해 의미론적으로 정당화된다.

(19)



영 전치사 *WITH*는 사전에서부터 접사의 자질을 가지고 통사부에 나온다고 가정하면, 다음의 접사 여과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위 동사에 편입(incorporation)되어야 한다.

- (20) 접사의 자질을 가진 요소는 α -이동이나 α -대치에 의해 접사 자질이 없는 요소와 결합해야 한다.(An element with [+Affix] must be supported by an element with no [+Affix] feature either by Move- α or by Replace- α).

영 전치사 *WITH*의 인상 결과 생긴 결합체 [*gave, WITH*]는 다시 비어있는 동사 *V₁*으로 인상되어 동사 *give*의 형태론적 선택자질(morphological selectional feature)[+1CD, +2ID]를 만족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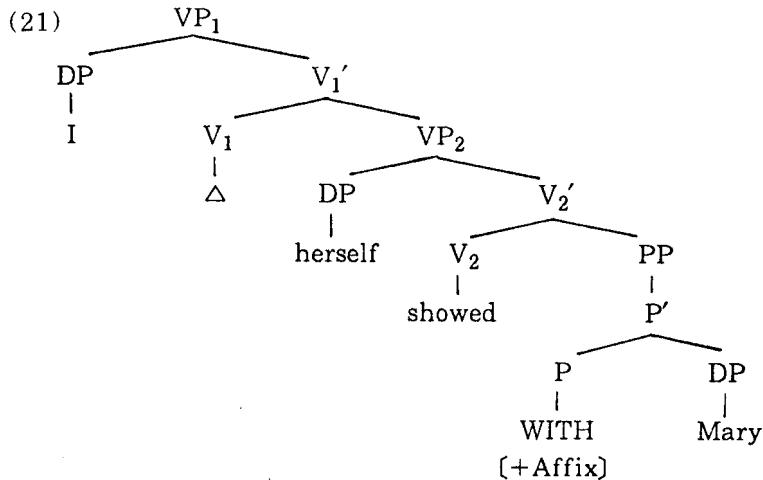
의미역관계 완전해석원리 (2)에 따라, (19)에서 논항 *the church*는 XP-술어인 PP [ϕ *some money*]와 의미역 관계에 있다. 논항 *John*은 X'-술어인 *V₁'*와 의미역관계에 있으며, 동사가 또 다른 동사구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으므로 사역관계(causal relation)를 나타낸다. Hale & Keyser(1991, 1992)가 주장했듯이 이 경우 논항은 *agent*에 해당되는 의미역이 주어진다. 아울러, 논항 *some money*가 영 전치사로부터 의미역을 받는다고 본다.

우리의 분석은 더 이상 수동화와 같은 변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여격구문과 이중목적구문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며 단지 전치사의 선택에만 차이점이 있다. 즉, (18b)에서는 여격 전치사 *to*가 사용되어, 어떤 존재가 어떤 수혜자나 종착점을 향해 (실제로 또는 비유적으로) 이동해가는 관계를 나타낸다. 영어의 경우 이 전치사는 대개 영범주가 아닌 실제로 발음이 가능한 전치사로 나타난다. 반면에, (18a)과 같은 이중목적구문에서 가정된 추상적 전치사는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를 소유하는 관계를 나타내는데, 영어의 경우 대개 영범주이어서 접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편입의 과정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분석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여러 문법현상에 우리의 분석을 적용시켜 보겠다.

4. 적용 결과

4. 1. 영역 비대칭 현상

앞서 (10)–(12)에서 밝힌 여격구문 및 이중목적구문의 비대칭성은 우리의 분석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중목적구문도 여격구문과 마찬가지로 전치사구를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첫번째 목적어가 두번째 목적어 보다 항상 구조적으로 위에 위치하여 성분통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b), (11b), 그리고 (12b)의 비문법성은 (10d), (11d), 그리고 (12d)의 비문법성과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된다. 예컨대, (10b)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VP₂의 지정어 자리에 있는 재귀대명사 *herself*는 보충어 자리에 있는 *Mary*에게 항상 성분통어되지 않아 결속이론을 어긴다.

4. 2. 형태적으로 복잡한 수여동사

아래 (22)와 (23)에서 볼 수 있듯이 수여동사가 형태론적으로 복잡해지면 이중목적구문이 비문이 되는 경우가 있다.

- (22) a. Mary sent off a book to her sister.
 b. *Mary sent off her sister a book.

- (23) a. Mary re-sent a book to her sister.
 b. *Mary re-sent her sister a book.

얼핏보아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의 분석에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주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격구문과 이중목적구문이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이론의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2b)와 (23b)의 비문법성

에 대한 우리의 설명은 Chomsky(1992)의 격이론에 의존한다. 그에 따르면 주격과 목적격 같은 구조적 격은 일반적으로 시제와 동사가 각각 헤이동(Head Movement)한 후, 기능범주 AGR의 지정어 자리로 올라온 명사구와 지정어-핵 일치(SPEC-head agreement)에 의해 허가된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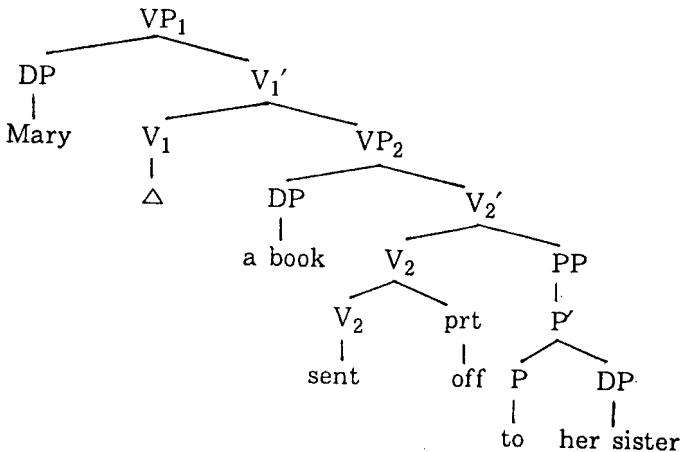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 격이 올바로 허가되기 위해서는 더 한정된 조건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즉, 격을 허가해주는 요소(우리는 이를 activator라 부른다)와 AGR 사이의 관계는 다음 (24)의 자매관계(sisterhood relation)를 항상 만족시켜야 한다.

(24) α is a sister to β iff

- (i) α and β c-command each other, and
- (ii) If α is a segment in an adjunction structure, then only once embedded α is in sister relation to 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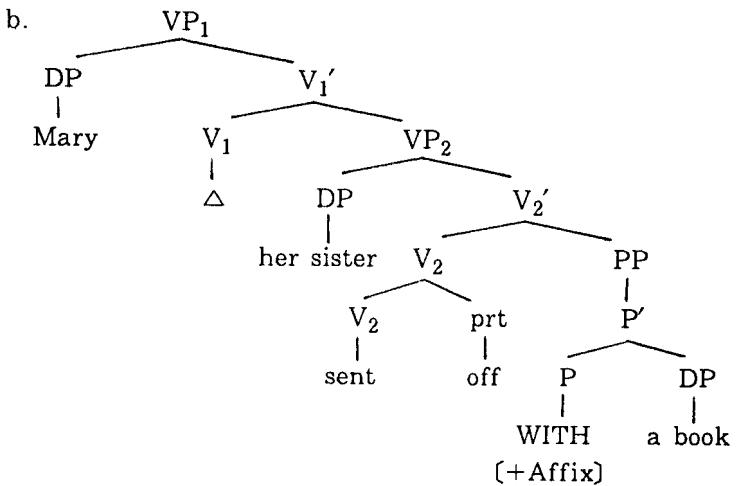
(24)는 시제나 동사와 같은 격을 허가해주는 activator들이 헤이동 후 기능범주인 AGR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된다는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을 염두에 두고, 위 (22a, b)의 차이점을 의미구조로 나타내 보면 다음의 (25a, b)와 같다.⁷⁾

(25)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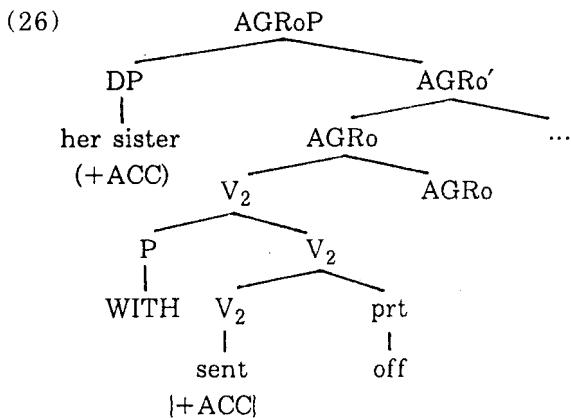


6) 새로운 격이론에 대해서는 Chomsky(1992), Chomsky & Lasnik(1991), Hoffman(1991), 그리고 Watanabe(1993) 등을 참조하시오.

7) *sent off*와 같은 형태론적으로 복잡한 동사는 어휘부에서는 별개의 목록으로 있다가, 통사부에 들어올 때 결합되지만 여전히 두개의 단위를 유지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목적격을 점검하는 자는 여전히 *sent* 혼자만이기 때문이다.



(25a, b)의 차이점은 전치사가 영법주인가 아닌가에 있다. 우리의 주장은, 전치사가 (25a)처럼 영법주가 아니면 편입(incorporation)될 필요가 없어서 동사구 *sent off*가 목적격 *a book*의 격을 허가해주는 것을 방해하지 않지만, (25b)의 경우처럼 영법주의 전치사를 가정한다면 (24)의 조건을 어기게 되어 비문이 된다는 것이다. (25b)에서 목적격이 점검되는 과정을 따로 나타내 보면 다음 (26)과 같은 구조가 될 것이다.⁸⁾



동사 *sent*가 지니고 있는 목적격 자질이 지정어 자리에 위치한 명사구 *her sister*의 목적격 자질을 점검해야 하는데, 비록 자질의 상충은 없지만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 우리의 용어로 말하자면, activator인 동사와 기능범주 AGRo 사이에 자매관계가 성립 안되어 격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비문임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23a, b)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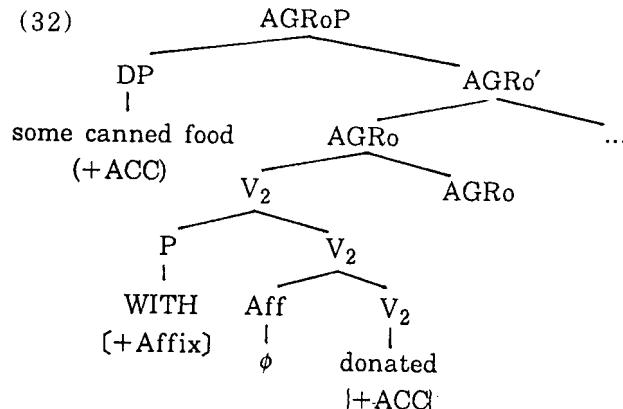
더우기 우리의 분석은 여격구문은 허용하지만 이중목적구문에는 나타나지 않는 동사들에 대

8) (26)에서 소괄호 안에 있는 자질은 점검을 받아야 할 것(checkee)을 지칭하며, 중괄호 안에 있는 자질은 점검을 해주어야 할 것(checker)을 지칭한다.

한 체계적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이것들은 Pesetsky (1992, 123)에서 참조한 것임)

- (27) a. John donated some canned food to Oxfam.
b. *John donated Oxfam some canned food.
- (28) a. Bill conveyed his regards to Sue.
b. *Bill conveyed Sue his regards.
- (29) a. Mary displayed her findings to the committee.
b. *Mary displayed the committee her findings.
- (30) a. Tom recounted the story to Ben.
b. *Tom recounted Ben the story.
- (31) a. Sue telegraphed some money to Bill.
b. *Sue telegraphed Bill some money.

(27)에서 (31)에 있는 동사들은 공통적으로 Latin에서 차용된 것들이다. 만일 이 동사들이 어휘부에서 통사부에 들어올 때 영 접사(zero affix)를 취한다고 가정한다면 (b) 문장들의 비문법성은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⁹⁾ 예를 들어, (27b)의 목적격 허가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32)에서 activator인 동사 donated와 AGRo 사이에 (24)의 자매관계를 이루지 않아, checker인 동사의 목적격 자질과 checkee인 명사구의 목적격 자질이 허가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8b)–(31b)의 비문법성도 설명될 수 있다.

우리 이론에 명백한 반례인 것처럼 보이는 예들이 있다. 다음의 예들은 이중목적구문으로는 가능하지만 여격구문으로는 안쓰인다.

9) Stowell(1983)은 *donate*와 같은 동사들이 여격구문을 허용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latinate]라는 자질을 설정함으로써 형태론적 어형성(morphological word formation)이 여격구문화 변형규칙에 개입된다고 주장한다.

- (33) a. The judge spared John the ordeal.
 b. *The judge spared the ordeal to John.
- (34) a. John denied Bill a request.
 b. *John denied a request to Bill.
- (35) a. The house cost him a great deal of money.
 b. *The house cost a great deal of money to him.

(a)의 예문들은 영범주의 전치사를 가정한다는 점에서 위 (18a)의 *give*동사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b)의 예들은 우리의 이론을 무효화 시키는 듯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의미구조 이론에서 어떤 조건이나 원리를 위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spare*와 같은 동사들이 반드시 이중목적구문을 취하게 되는 이유는 통사적인 것이라기 보다 그들의 어휘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러한 동사들의 간접목적어는 다음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달점이나 출발점이 되지 않는다.

- (36) *The judge spared the ordeal {to/from/of} John.

이들 동사들의 의미관계는 항상 간접목적이 직접목적을 “소유”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a)와 같은 구문만 존재한다고 본다.

4. 3. 명사구 및 의문사구 이동

여기서는 이중목적구문에서 나타나는 비대칭 현상을 다루어 보겠다. 다음 (37)과 (38)에서 보듯이, 의문사구는 직접목적어 자리에서 추출이 가능하지만 간접목적어 자리에서는 불가능하다. 반면에 수동화 변형인 명사구 추출은 간접목적어 자리에서는 가능하지만 직접목적어 자리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현상도 우리의 이론에서는 자연스럽게 설명되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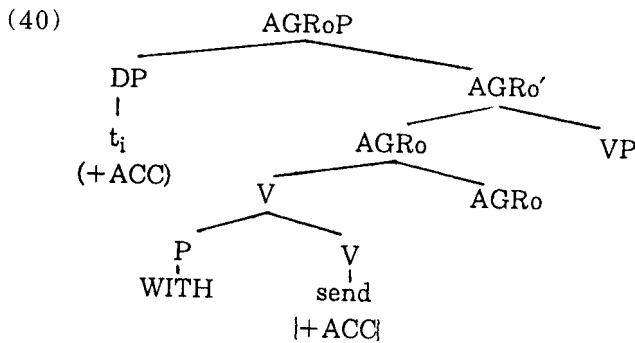
- (37) a. What_i did she send her sister *t_i*?
 b. ?*Who_i did she send *t_i* a book?
- (38) a. Her sister_i was sent *t_i* a book.
 b. ?*A book_i was sent her sister *t_i*.

우선 (37a, b)의 대조를 살펴보자. (37a)에서 목적격의 점검을 받는 요소는 명사구 *her sister*인 반면, (37b)에서는 변항인 *t_i*이다. 만일 변항의 격점검이 보통 명사의 격점검 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37a, b)와 같은 차이점은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¹⁰⁾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 (39) 변항의 격점검은 activator와 AGR 사이에 상호 성분통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0) 변항과 보통명사구는 모두 R-expression에 속하지만, 전자가 후자보다 더 엄격한 결속이론의 적용을 받는다는 주장(cf. Chomsky(1986a: 166))과 우리의 격이론에서 변항의 격점검이 명사구와는 달리 상호 성분통어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변항의 허가(licensing)는 그것의 선행사인 운용자와 항상 같은 영역(domain)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37b)의 격점검 구조를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39)에 따라 변항 t 가 격점검을 받기 위해서는 activator인 동사와 AGR₀ 사이에 상호 성분통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37b)의 비문법성이 정확히 설명된다.

다음에는 (38a, b)와 같은 수동문에서의 대조를 살펴 보자. 수동동사 *given*은 자신의 목적어에게 목적격을 점검할 능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38a)에서 수동동사의 목적어였던 *her sister*는 Spell-Out 이전에 AGRs의 지정어 자리로 올라가서 주격의 점검을 받는다.¹¹⁾ 물론, 직접목적어 *a book*은 우리의 이론에서 가정하는 영 전치사 *WITH*에게서 내재적 격을 점검받는다. (38b)의 비문법성은 연쇄조건(Chain Condition)을 어기는 것에 기인한다. 만약 *a book*이 t 의 위치에서 이동해 갔다면 연쇄(*a book*, t)은 격을 점검받는 요소가 하나이어야 하는데 연쇄를 이루는 구성요소 *a book*과 t 가 모두 격점검에 참여한다. 즉, 전자는 결합체 [AGRs, T]에 의해 구조적 격이 허가되고, 후자는 전치사 *WITH*에 의해 내재적 격을 허가 받는다. 이와 같은 이중적 격허가는 격상충(Case Conflict)을 일으키어 비문을 야기시킨다.

4.4. 작용역 동결 효과 (The Scope Freezing Effect)

아래 (41a)과 같은 여객구문에서 내부논항에 나타나는 운용자(operator)들의 작용역은 2가지로 해석되지만 (41b)와 같은 이중목적구문은 1가지로만 해석되는데 우리는 이를 작용역 동결 효과라 부른다.

- (41) a. The teacher assigned one problem to every student. (+A)
 b. The teacher assigned one student every problem.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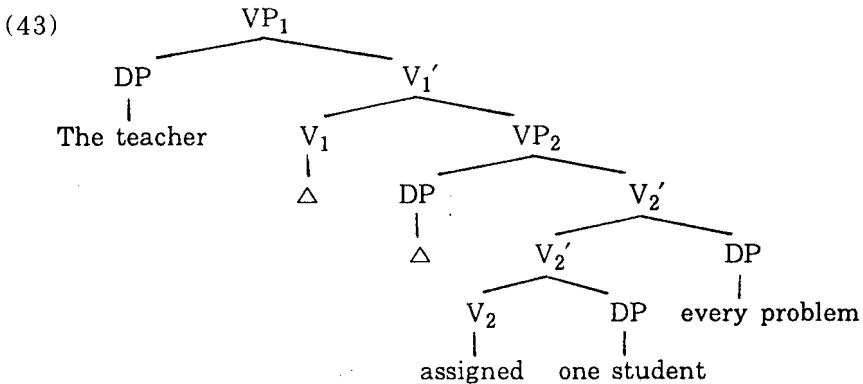
즉, (41a)는 *one problem*과 *every student*가 넓은 작용역을 가질 수 있는 반면, (41b)에서는 *one student*만이 넓은 작용역을 가진다. 이런 현상은 다음 (42a)와 그것의 수동문인 (42b)가 모두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놀라운 일이다.

11) 최소이론에서는 논리형태와 음성형태의 2가지 계층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종래 지배-결속이론에서의 D-구조와 S-구조는 없어졌다. 대신 D-구조와 S-구조는 각각 만족(Satisfy) 규칙과 문자화(Spell-Out) 규칙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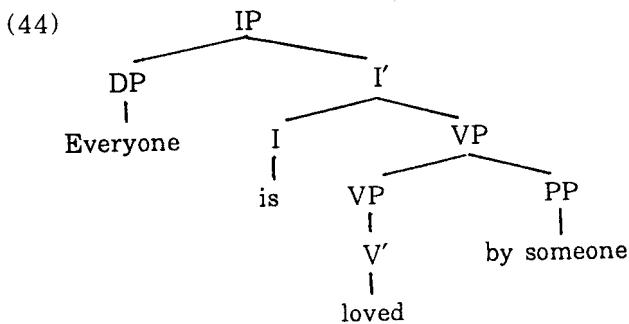
- (42) a. Someone loves everyone. (+A)
 b. Everyone is loved by someone. (+A)

이와 같은 자료가 이중목적구문이 일종의 수동화 변형에 의해 파생된다는 Larson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로 제시될 수도 있다.

Larson은 물론 작용역 동결 효과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Yang(1993년 봄 학기 강의)은 Larson의 문법체계 안에서 양화사 구(quantificational phrase)의 논항으로 서의 자격여부에 따라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41b)와 같은 이중목적구문은 다음 (43)와 같은 구조에서 파생되는데, *every problem*과 같이 부가된(adjoined) 위치에 있는 명사구는 비 논항위치에 있기 때문에 양화사 인상(Quantifier Raising)에 참여하지 않아 (41b)와 같은 문장이 작용역 동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Yang은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42b)와 같은 수동문의 2가지 해석을 설명 못한다. 왜냐하면, (42b)에서도 *by someone*이 아래 (44)과 같이 동사구에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Jaeggli 1986 참조)



이중목적구문에서의 작용역 동결현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 구문에 가정된 영 전치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선 (41a)의 2가지 해석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양화사구는 시제가 가지고 있는 [+OP] 자질을 점검받기 위해 논리형태에서 시제의 영역으로 올라간다고 우리는 가정한다. 양화사가 인상된 후 남은 흔적 *t*는 격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남은 *t*는 AGRo의 지정어 자리로 올라가서 결합체

[AGR_o, V]에 의해 구조적 격을 허가받고 전치사 *to*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t*는 내재적 격을 허가 받는다. 따라서 (41a)의 경우 어떤 원리도 위배되지 않고, 시제의 영역으로 올라간 양화사들은 다음 (45)의 작용역 원리에 따라 2가지 해석을 받는다.

(45) 양화사 원리

양화사 α 는 양화사 β 를 포함한 연쇄의 구성요소를 성분통어할 때에만 양화사 β 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다.

(41b)의 작용역 동결효과는 우리의 격점검 이론으로 잘 설명된다. 만일 (41b)의 *one student*가 양화사인상 되어 시제의 영역으로 올라간다면 그 뒤에 남은 변항인 *t*가 격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앞 절의 의문사 이동에서 본 것과 똑같이 변항 *t*가 격을 허가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중목적구문에 있다고 우리가 가정한 영 전치사 *WITH*가 동사와 AGR_o 사이의 상호 성분통어조건을 어기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41b)와 같이 양화사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두 양화사 간의 작용역은 선형순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의미구조에서는 선형순서상 첫번째 양화사가 두번째 양화사를 언제나 성분 통어하기 때문에 문제의 작용역 동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다.

4.5. 명사로부터 파생된 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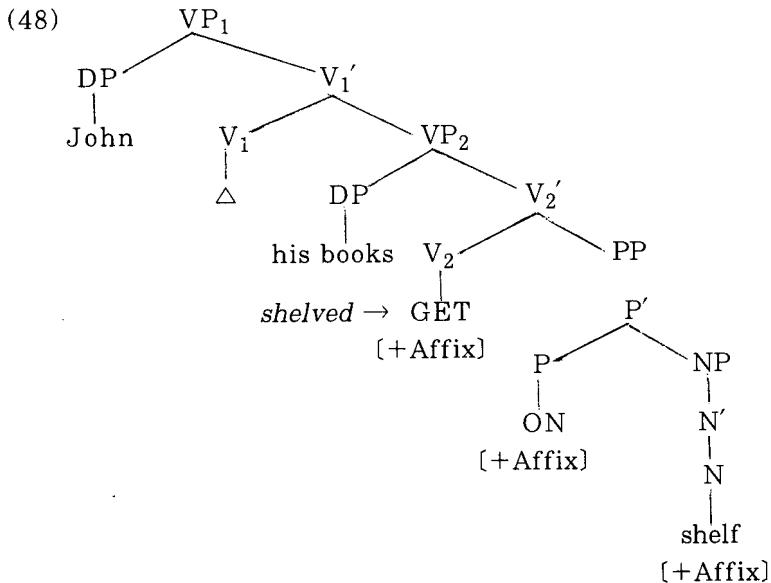
우리의 토론을 위해 다음 (46)와 (47) 사이의 문법성의 차이점을 우선 살펴 보도록 하겠다.

- (46) a. John put his books on the shelf.
- b. John shelved his books.

- (47) a. John gave his money to the church.
- b. *John churched his mo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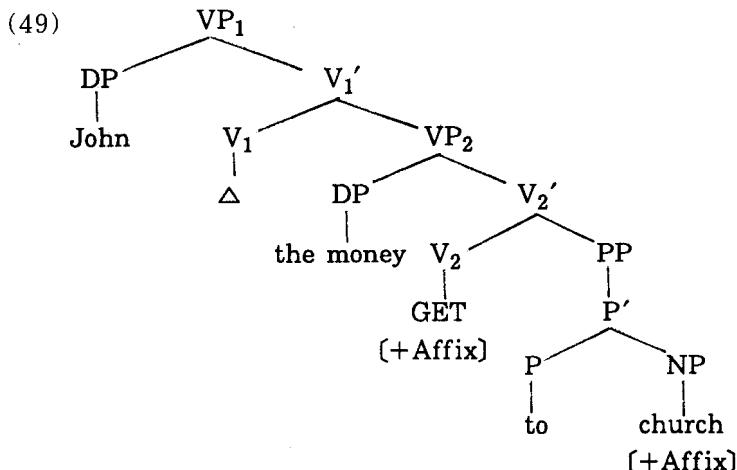
외관상 동사 *put*과 *give*는 명사구와 전치사구를 보충어로 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전자는 일종의 융합(conflation)이 가능하여 융합된 동사 *shelve*는 동사 *put*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움직임이나 동작의 개념과 전치사구 *on the shelf*가 가지는 목표점이나 위치의 개념을 동시에 갖는다. 형태론적으로 말하면, 융합동사가 가지는 위치의 개념은 이 동사의 기원인 명사 *shelf*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후자는 흥합이 불가능하여 “*to give to church*”를 뜻하는 파생동사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실도 우리의 이론이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이겠다.

우선, (46b)와 같이 융합이 가능한 형태는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파생될 것이다.



*GET*과 *ON* 같은 추상적인 약범주(light category)는 어휘부에서부터 [+접사]의 자질을 가지고 나온다고 우리는 가정한다. 더우기, *shelf*와 같은 보통 명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접사]의 자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 DP가 아니라 NP로 투사된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접사]의 자질을 가진 범주는 위 (20)에서 제안된 접사 여과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8)에서는 모든 어휘 범주가 [+접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은 서로 서로 순환적으로 편입의 과정을 거쳐 결합체 (*shelf + ON + GET*)가 형성되어 *V₂*의 자리에서 동사 *shelved*로 대치되어 삽입된다. 이와같이 편입의 과정을 통해 명사 *shelf*로부터 동사 *shelve*가 파생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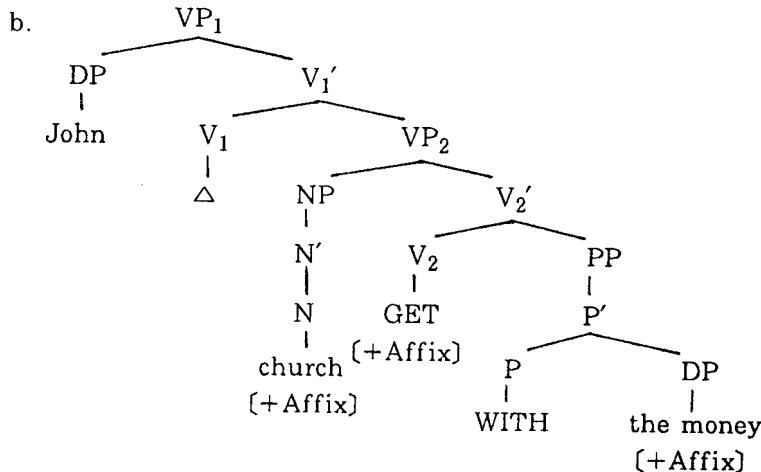
그러면 (47a)의 예격구문에서 명사 *church*에서 동사 *church*가 왜 파생 안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47b)는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파생될 것이다.



(49)에서 명사 *church*는 상위 동사 GET에 직접적으로 편입될 수 없다. 왜냐하면, 또다른 핵인 전치사 *to*를 건너 가서 핵이동 조건을 어기기 때문이다.¹²⁾ 만일, 명사 *church*가 전치사 *to*에게로 인상된다면 접사 여과조건 (20)을 만족시키지만 결합체 [*to, church*]가 V₂로 더이상 인상될 필요가 없다. 최소이론에서는 어떤 범주의 이동은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에만 가능하다.¹³⁾ 따라서, 계속적인 인상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동사 GET가 접사 여과조건을 어기어 (47b)를 비문으로 만든다.

그러면, (47b)와 같은 파생동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즉, (50a)의 이중목적구문으로부터의 파생을 살펴보자. (50b)는 (47b)가 나타날 수 있는 의미구조이다.

(50) a. John gave the church his money.



얼핏보아, (50b)는 핵이동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명사 *church*로부터 동사 *church*로의 파생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명사 *church*가 V₁으로 이동하면 위 (2)의 의미역관계 완전해석원리를 위반한다. (50b)에서 술부 PP는 논항을 주어로 취해야 하는데, *church*가 편입되어 인상된다면 (2b)의 조건을 어기어 비문이 된다.

5. 결 론

영어의 의미구조는 최소 핵계층 구조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최소 핵계층 구조를 받아들인다면, 종전의 많은 이론에서 가정한 논항구조들을 따로 (대개는 어휘부에)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12) Baker (1988, 53)와 Chomsky (1986b, 71)의 핵이동 조건은 다음 (i)과 같다.

(i) *Head Movement Constraint (HMC)*

Movement of a zero-level category β is restricted to the position of a head α that governs the maximal projection γ of β , where α θ -governs or L-marks γ if $\alpha \neq \text{COMP}$.

13) Chomsky(1992)는 이를 이기성의 원리(principle of Greed)라고 부른다.

Larson(1988)의 유일보어가설, Chomsky(1992)의 새로운 격이론, Pesetsky(1992)의 영 통사론, 그리고 Yang(1993)의 논항구조 이론이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히, 이 중 목적구문에서 보여주는 특이한 문법현상들, 예를 들어, 작용역 동결효과, 추출(extraction)에서의 비대칭, 그리고 형태적으로 복잡한 수여동사에서의 비대칭 현상 등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Chomsky의 격이론이 더욱 제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격점검(Case checking) 과정에서 자매관계 (24)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의 이론은 Chomsky의 최소이론에 의존하여 전개하고 있지만 오히려 Chomsky의 이론을 더욱 강화시켜 준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의미구조 이론은 비단 수여동사 구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 논항구조 이론의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어왔던 심리동사구문, inchoative/causative 동사구문, 또는 middle 구문 등에도 잘 적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 Baker, M. (1988) *Incorporation: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Chang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Baker, M., K. Johnson & I. Roberts (1989) "Passive Arguments Raised," *Linguistic Inquiry* 20, 219-252.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 Chomsky, N. (1986a)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Praeger, New York.
- Chomsky, N. (1986b) *Barriers*,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Chomsky, N. (1992)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No. 1.
- Chomsky, N. and H. Lasnik (1991) "Principles and Parameters Theory," to appear in J. Jacobs, A. van Stechow, W. Sternefeld, and T. Vennemann eds., *Syntax: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Walter de Gruyter, Berlin.
- Hale, K. & J. Keyser (1991) "On the Syntax of Argument Structure," *Lexicon Project Working Papers*,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MIT.
- Hale, K. & J. Keyser (1992) "Argument Structure and the Lexical Expression of Syntactic Relations," ms., MIT.
- Hale, K. & J. Keyser (1993) "Constraints on Argument Structure," ms., MIT.
- Larson, R. (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s," *Linguistic Inquiry* 19, 335-391.
- Pesetsky, D. (1992) *Zero Syntax*,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Pinker, S. (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the Acquisition of Argument Structur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Stowell, T. (1983) "Subjects Across Categories," *Linguistic Review* 2: 285-312.

- Watanabe, A. (1993) *AGR-Based Case Theory and Its Interaction with the A-bar System*, Doctoral Dissertation, MIT.
- Yang, D.-W. (1993) "The Minimalist Theory and Argument Structure," ms., an unpublished paper read at the annual spring seminar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